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의미 탐색

하연수*, 김혜순**, 오안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유아교육과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Operation of the Revised Nuri Curriculum by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Ha, Yeonsoo* · Kim, Hyesoon** · Oh, Anna***

Dongguk University Gyeongju

Dongguk University Gyeongju

Dongguk University Gyeongju

minihiys@naver.com

heidi-77@hanmail.net

annahd1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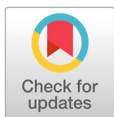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revised Nuri curriculum for teachers of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eachers of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ere affected by their childhood religious experiences. Second, teachers of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have been trying to pract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teachers of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re actively accepting and operating the changes in the national-level early childhood curriculum, the “Nuri Curriculum,”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Buddhist thought.

Key words :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vised Nuri Course

1. 문제 제기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은 일반 유아교육기관과는 구별되는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이 있다. 이러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을 위한 유아교육을 ‘불교유아교육’으로 칭할 수 있다. 불교유아교육은 ‘모든 생명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불성 발현과 유아기 바른 종교성 확립을 목표로 두는 교육의 흐름¹⁾으로 정의된다. 또한 불교와 유아교육이 조화된 실천 학문으로서 유아교육과 불교라는



OPEN ACCESS

KJRE. 2021 February, 65(1): 107-125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10006>

Received: January 25, 2021

Revised: February 21, 2021

Accepted: February 25, 2021

Copyright: © 2021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 주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별개의 범주를 합리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양자를 상호 보완하는 유아교육의 한 분야이다.² 일찍이 황옥자(1994)³도 불교 유아교육이란 매우 독자적이고 특성이 있는 학문으로서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유아들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자주인으로 성장·발달하도록 조력하는 교육과정의 총체이다’로 정의한 바 있다.

불교유아교육의 교육대상은 생애 초기 발달단계에 있는 유아기 아동이다. 통상 유아기가 한 개인의 종교성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⁴ 불교유아교육의 교육목표는 유아들에게 의미가 있는 불교적 경험을 제공하여 종교성과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불교유아교육의 교육내용 및 방법⁵으로는 부처님의 사상과 수행법을 유아교육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하며 특히 미래의 부처님인 개별 유아들을 존중하고, 각자 본성을 발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다. 특히 불교유아교육에서는 유아기 아동을 이상적인 인간상, 보살의 화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⁶ 이들의 본성을 찾아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불교교육의 본질이며 교육자의 책무로 보고 있다.

불교에서 교원의 역할은 선지식 역할과 닮아있다.⁷ 선지식은 본래 모든 악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최고의 양육자이며, 불법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인도자이고, 인생에 있어서 학생이 자신의 지혜로서 스스로 극복해 나가도록 일깨워 주는 최고의 스승이라는 의미이다.⁸ 뿐만 아니라 선지식이란 부처님이 말씀한 교법을 전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고통세계를 벗어나 이상세계에 이르게 하는 사람,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불연을 맺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원들도 선지식처럼 유아들에게 불교적 경험을 제공하여 불교인연을 이어주고 계, 정, 혜로 이끌어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존재⁹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불교 정신도 불교계 기관 교원들의 역할 기대와 연관시켜볼 수 있다. 무릇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구하며 성찰하여 자신을 알고 성숙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계 기관 교원에게는 불교사상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함께 수행력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이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이라면 교육의 매개자, 촉진자, 협력자라는 일반적 교수자 역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 불교적 경험을 안내하는 불교포교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의 역할은 최근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2019 개정누리과정의 운영 과정에서 다시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3~5세 공통 최초 교육과정으로서의 교육적 의미가 있지만 교사중심 교육과정으로 획일적인 교육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반면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유아들에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해주고, 유아 놀이와 배움의 이해에 대한 재 이해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교육활동 계획이나 교육과정 운영, 하루일과 운영에서 교원의 자율성을 크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와 특성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현장 교원들은 기존의 익숙했던 교육과정 운영방식 대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기존의 누리과정 생활주제에 맞춰 활동계획안을 세우고, 관련 수업을 위한 환경과 교구를 준비하여, 교육계획안에 의존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교원들에게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요구하는 실천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담을 이겨내고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현장 교원들은 기존의 지도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교실환경과 활동분위기 변화, 그리고 교사 자신의 교육신념이나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태도 등에서부터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보통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은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보다 시설환경이나 교사 처우가 앞서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영세해서 지역사회에서 교육경쟁력이나 교육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¹⁰가 종종 있다. 특히 근래 취원 원아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소도시에서는 원아 유치나 입학경쟁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발전은 재직 교원들의 종교적 신심이나 수행활동 외에도 교원

들의 교육과정 운영능력에 상당부분 의존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개정누리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독창적인 불교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동안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관별 설립이념에 바탕을 둔 제반 교육활동을 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¹¹ 이러한 불교계 교육기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 왔다. 그리고 불교계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전국의 불교계 기관 교원들과 불교유아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¹²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불교유아교육이라는 독특한 학문 영역이 발전될 수 있었고, 관련 현장기관이 보존되고 발전되는 동력으로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유아교육 관점의 교사 상(像)과 관련된 용어가 있다. ‘상자상의(相資相依)’이다. 즉 교사와 유아들의 바람직한 관계를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명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원과 학습자 간의 상호 보완의 관계, 상호 발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¹³는 의미이다. 개정누리과정에서도 유아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버리고 유아를 존중하면서 각 기관 및 학급 수준에서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안내하는 지침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개정누리과정의 교육방향과 불교유아교육의 교사상을 통해 확인되는 교육방향은 상호 밀접성이 있다. 이에 개정누리과정이다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육과정의 마지막 성과 여부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¹⁴ 다시 말해 교원들의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성공적일 수 없다.¹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성과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개정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원들의 역량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주체로서의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정누리과정의 흐름은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원이라면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실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서 2019 개정누리과정이 현장에 정착되는 시점에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의 개정누리과정 운영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유아교육 연구 지평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불교유아교육을 추구하는 현장 기관들의 교육과정 운영 주체로서 교원들의 불교와 유아교육과정 통합능력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살펴볼 연구 내용은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불교 배경과 아동기 종교성은 어떠하며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최소 6년 이상의 교원 5인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는 목적 표집으로 선정되어졌다. 즉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원으로서 불교유아교육과 개정누리과정 실천에 대한 경험이 있는 대상이 표집되었다. 본 연구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근무경력이 최소 6년 이상인 교원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6년 이상 근무경력의 교원의 범위 안에서 현재 교육현장에서 개정누리과정을 실천하고 있는 교원으로 선정기준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은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재직 교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이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 의미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교직경력 (2020년 8월 현재)	직급	학력	근무지역	경험한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3~5세 누리과정	2019개정누리과정
A교사	19년 6개월	원장	석사	경기도	○	○	○
B교사	7년 6개월	교사	석사	경상북도	○	○	○
C교사	6년 6개월	교사	학사	경상북도	○	○	○
D교사	6년 8개월	교사	석사	광주광역시	○	○	○
E교사	12년 5개월	주임교사	석사	경상북도	○	○	○

연구 참여자 A원장은 현재 재직 중인 불교계 유치원에서 초임교사로 시작하여 19년의 교사생활을 공백 없이 이어왔고, 2020년 3월부터 같은 기관의 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에서 19년이라는 교사생활을 이어오며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경험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안내와 제안을 하였을 때 자신의 교사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면담을 허락하며 연구 참여에 기꺼이 동의하였다. B교원은 현재 재직 중인 불교계 유치원에서 초임교사로 시작하여 공백 없이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한 교직경험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C교사는 불교계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졸업 후 2곳의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였다. 2010년 초임교원 때부터 5년간 불교계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결혼과 출산 후, 2019년부터 불교계 유치원에서 교직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휴식 이후 교직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점에서 개정누리과정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D교사는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갖고 불교계 어린이집에서 3년 6개월, 이후 불교계 유치원의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불교계 기관의 교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로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교사는 불교계 대학의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졸업 후, 불교계 유치원에서 7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휴식기를 가진 후, 같은 불교계 유치원에 복귀하여 2017년부터 주임교사로 교원 생활을 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심층면담과 반구조화 된 질문기록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질문 구성을 위해 관련 질적 연구물을 검토하였고, 질문지 초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등을 통해 최종 면담 질문지를 완성시켰다. 면담의 내용은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으로서의 배경과 2019 개정누리과정 운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교육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개방적 질문과 반구조화 질문이 토대가 된 면담 질문지를 미리 구성하였다. 최종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최종 면담 질문지

범주	하위범주	질문내용
연구 참여자 특성	직업의 불교 인연	· 불교계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 선생님의 종교관과 관련이 있나요?
	불교계유아교육기관 교사 경험 인식	· 불교유아교육기관 교사로서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 선생님의 경험은 선생님과 유아들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교교육과정 인식	· 선생님의 평소 교육에서 불교의 핵심사상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교육과정에 불교의 핵심사상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으로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의미	개정누리과정 인식	· 선생님께서 그동안 경험하신 유아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 개정누리과정이 이전 유아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변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개정누리과정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개정누리과정이 선생님, 유아, 학부모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 개정누리과정과 불교유아교육의 핵심 철학이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불교교육기관에서 개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자료수집 과정과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면담방법, 면담내용 녹음 방식 등에 대한 안내 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와의 첫 면담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 면담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협의 및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5인 중 3인(B, C, E 교사)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2인(A, D 교사)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물리적 거리 두기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전화와 이메일을 활용하여 면담이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크레스웰¹⁶(Creswell)의 나선형 자료 분석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즉, ‘자료수집, 자료관리, 읽기와 메모하기, 주제에 따라 분류하기, 자료 해석하기, 자료 제시하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5인의 연구 참여자와 진행한 심층면담과 질문 기록지를 연구 참여자, 면담일시에 따라 분류하고 텍스트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다음으로 저장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었다. 읽기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단, 문장을 표시하여 핵심내용을 메모하였다. 메모 내용에 따라 유사 내용을 추출하고 반복하여 읽기 작업을 수행하며 유사한 특성, 관련성에 따라 이야기되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주제어를 분류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각자 분석한 메모, 유사내용, 주제들을 교차 분석하고 논의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추출된 주제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8개의 하위범주로 유목화하고 범주들 간 특성에 따라 2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자료의 해석과정에서는 범주화된 내용에 따라 교원의 교육적 노력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여 불교유아교육과 개정누리과정과의 관련성, 불교유아교육기관 교원의 개정누리과정 실행에서 나타나는 수용방식과 자기성찰 노력 및 교육과정 실행의 특성 등을 심층논의 하였다. 최종 도출된 범주는 <표 3>과 같다.

<표 3> 최종 도출된 범주

범주	하위범주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불교 인연	·종교성 발달이 불교기관 인연으로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설명된다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의미	개정누리과정과 불교유아교육과정의 연관성 인식
	불교유아교육 관점의 개정누리과정 운영 모습
	·전인적 발달 추구 ·육바라밀과 더불어 살아가기 ·생명존중사상 ·교육과정 실천의 주체는 교원 ·자기성찰을 하는 교원 ·협력과 융합의 교육공동체

범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과정 실천 주체로서의 교원들이 지각하는 불교계 교육기관 인연이다. 교원들은 주로 유아기 종교적 경험을 회상하였고, 인연법으로 불교적 인연을 풀이하였다. 모든 개인의 종교성은 유아기가 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각하는 유아기나 아동기 종교적 경험이 자신의 종교성과 연관되어 이후 교원들의 불교유아교육과정 실천 의미가 탐색되는 기초가 되었다. 다음으로 불교유아교육 관점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의미가 탐색되었다. 이를 위해 자료 분석에서 개정누리과정의 핵심요소가 불교의 핵심사상과 연결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이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불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포함된 자료수집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유아교육기관에서 풍부한 경력이 있는 교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질문기록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3인의 연구자가 공동연구하며 자료분석과 해석과정에서 논의를 갖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와 해석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시하여 견해를 요청하는 참여자확인(member check) 과정을 가졌고, 분석된 자료를 유아교육전문가 2인의 검증과 불교 유아교육관련 교육자의 검토를 받아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불교 인연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이전 종교적 경험이나 인식이 우선 불교유아교육기관 근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의사결정과정으로 교육과정의 실행을 통해 구현된다. 연구 참여자의 이전 경험은 연구 참여자가 관계하고 있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실천 방식이나 운영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무엇을 경험하였고, 무엇이 연구 참여자와 불교유아교육기관과의 인연을 이끌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1) 종교성 발달이 불교기관 인연으로

유아기의 경험은 이후 발달 과정에 결정적이다. 특히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종교성은 유아기에 유아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유아교육기관의 교원이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을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유아기 경험을 떠올렸다. 교원 자신이 유아기 양육자와 함께 한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는 기억에서 종교성의 발현 흔적을 찾아내고 그러한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 불교계 기관에서의 근무를 결정하는 등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를 드리러 절에 가실 때 따라 갔었어요. 어두운 새벽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어 올라가는 그 길이 편안했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향냄새가 좋았던 기억에 요즘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기억과 함께 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에 갈 때 느꼈던 자갈 밟는 소리, 흙 밟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이모할머니께서 절에 계셨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갔었지만 나중에는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민거리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절에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부모님께서 큰일을 앞두고는 늘 절에 다녀오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학교나 직장을 선택 할 때 절을 찾았어요.

(C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어린 시절 엄마와 절에 가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셨어요. 공양물을 준비하시면서도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현재 재직하는 유치원에서 예불을 드리거나 원장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기도 중에서 어린 시절 들었던 기도 문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마다 “아, 이게 그거였어.”하며 깨달아요. 예를 들면 천수경 같은 것이예요.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종교관과 맞는 기관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E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유아기 종교성의 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연구 참여자가 가족과 같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음을 보여준다. 유아기 종교적 경험이 불교유아교육기관과의 인연으로 이어졌다는 이들 연구 참여자의 사례에서 유아기 종교성이 유아와 밀접한 부모와 같은 환경에서 자주 경험한 종교적 경험과 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성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사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친숙함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발달하는 것¹⁷⁾을 알 수 있다.

2)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설명된다

저는 학부과정 중에 실습이나 관찰 수업으로 B, D유치원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연하게도 경험한 유치원이 모두 불교계 유치원이었다는 점에서 뭔가 친숙함이라는 것이 작용한 거 같아요. 그리고 불자였던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대학을 선택할 때 불교계 유아교육학과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할머니님의 영향으로 불교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불교를 통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 하여 대학과 직장을 선택할 때 작용했어요.

(C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변 세계 내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친숙하게 교섭하며 머물렀던¹⁸⁾ 그들의 유년기, 또는 교원생활 초기의 경험에서 현재 자신이 불교유아교육기관에서 존재함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과 서로 의존해서 유기적으로 존재한다는 불교의 연기론(緣起論)¹⁹⁾을 떠올리게 한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만난 스님과의 인연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불교유아 교육환경과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직원분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보이는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져서 ‘이런 곳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때문인지 지금 불교계 유치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불교계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A교사, 질문기록지, 2020년 9월 4일)

대학에서 불교아동학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유아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유아기 때부터 불교를 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면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근무하는 원에서도 어린이 오계와 육바라밀을 통해 유아 간의 배려와 존중, 이해가 소 중함을 전하고 있어요.

(D교사, 질문기록지, 2020년 10월 20일)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연기적 인간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끊임없는 연결됨을 바탕으로 불교유아교육기관과의 인연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특히 관계하는 대상 과 불교유아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유아기 종교성과 유아기 경험이 연기적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에 선택에 작용 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2.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의미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운영경험 이야기를 통해 불교유아교육과정과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불교유아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 운영의 연관성이나 공통성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교육목적 및 교육방법이 불교유아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육방향이나 교육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선 개정누리과정과 불교유아교육과정의 공통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1) 개정누리과정과 불교유아교육과정의 연관성 인식

(1) 전인적 발달의 추구

개정누리과정은 유아의 본성을 이해하여 존중하고 자발적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²⁰으로 유아중심, 놀이중심이라는 개념은 유아의 자발성에 의한 활동이며, 과정 자체에 목적을 두는 개념적 속성을 갖고²¹ 궁극적으로 전인적 발달을 추구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유아교육의 본질인 전인적 발달은 공통의 지향이었다. 불교유아교육에서도 유아의 잠재된 불성발현을 추구하며 유아를 주체적인 인격체로 보는 교육을 바탕으로 한다는²²점에서 개정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바와 공통 지향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다음 연구 참여자의 교육과정 실천의 경험적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른을 만날 때 합장을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보고 삼배를 하는 것이 불교적 가르침이라고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 교사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니 이런 게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기본생활습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초입 때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지금도 아이들과 나누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배구슬’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보배구슬의 색깔이 투명해 지기도 하고 검정색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에요. (A교사, 질문기록지, 2020년 9월 4일)

기본생활습관이 불교의 어린이오계로 대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할 때 어린이오계를 떠올리며 중재하기도 하고, 언어영역에 제시된 어린이오계 그림을 보며 갈등상황이나 놀이상황에서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이러한 부분을 다시 강조할 수 있었던 게 수계법회였고요. (E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기본생활습관, 보배구슬, 어린이 오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었고 이것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율성을 갖고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유아의 불성발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 오계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오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에서는 ‘어린이 오계’를 통하여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계율’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어린이 오계’는 유아교육 측면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연친화적 행동, 타인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행동,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하는 언어적 행동,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인간관계적 행동,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피교육자의 자질과 행동을 강조하므로 ‘어린이 오계’, 그리고 이러한 계율을 지키는 것의 첫걸음이 되는 ‘수계의식’은 그 교육적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²³

어린이오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유아교육의 교육관이 유아교육과정의 교육관과 같은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교유아교육의 교육관은 불교사상의 자비(慈悲)를 바탕으로 한다. 불성과 같이 누구나 자비심을 가진 존재이기에 개정누리과정이 기대하는 전인적 발달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교사상의 바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야기에서 좀 더 찾아볼 수 있다.

아이들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교사의 불교적 소양이 자연스럽게 모델링이 되어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오계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C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유치원의 졸업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숲 산책을 하다가 산딸기 하나를 발견했었는데 아이들은 20명이 넘는데 산딸기를 한 개씩 맛보기엔 부족하잖아요. 그때 제가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아이들에게 맛을 볼 수 있게 해줬대요. "부처님이 작은 것도 서로 나누어 먹으라고 했다고... 산딸기의 맛을 느끼게 해준 자연한테 고맙다고 이야기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며 산딸기를 먹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보내온 편지였어요. 그런 편지를 받아보니, 행사라서 뭘 해야 하지?, 부처님 말씀처럼 뭘 가르쳐야지?, 고민하기보다 스스로 내면화 되어 있으면 언제든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E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2) 육바라밀과 더불어 살아가기

개정누리과정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적인 전인적 발달을 위해 개정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에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²⁴ 유아의 발달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명한 사실이다. 불교유아교육에서는 관계하는 모든 대상과 상호관련성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는 육바라밀²⁵ 교육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육바라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바라밀은 “너”와 “나”가 서로 함께 성숙하여 다 같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사회적 방편의 의미를 지닌다. 가르침을 주고 배우는 관계를 평등한 관계 즉 서로를 통해 함께 나아가 궁극적 목표에 도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²⁶

육바라밀의 교육철학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타인도 함께 위하는 이타행의 지혜가 담겨 있다. 연구 참여자의 교육과정 실행의 경험적 이야기 속에서도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의 ‘동체적(同體的)’관계를 유지하며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담겨있었다. 이것은 유아교육과정과 불교의 실천덕목의 통합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내 마음 속 씨앗이 바르게 바라기 위해서 힘든 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E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16일)

아이들과 매년 학기말 활동 중에 하나로 육바라밀의 여섯 가지 실천덕목을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육바라밀의 어떤 약속을 잘 지켰는지 연결지어보고, 칭찬도 해줬어요. 그리고 수료나 졸업식에 쥘~하고 육바라밀상을 만들어 선물해줬지요.
(D교사, 질문기록지, 2020년 10월 20일)

다음의 사례에서 개정 전 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과의 운영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는데, 개정누리과정을 실천하는 교사의 노력의 과정에서 교사도 유아도 자연스럽게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적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놀이를 공유하며 정리하는 시간은 개정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아침모임과 같은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아침 모임 시간에 날씨, 오늘의 기분 알아보았다면 지금은 놀이에 대해 같이 평가하고 공유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 같아요. (E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16일)

유아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놀이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과 중에 유아들이 오늘 놀이했던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놀이에 대한 공유도 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어요. 이런 시간을 가져보니, 대그룹 활동 대신 자리에 모여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놀이에만 집중해있던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알게 되고, 서로의 놀이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면서 함께 놀이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16일)

(3) 생명존중사상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중 하나인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불교유아교육의 생명존중사상과 그 의미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 생명존중사상은 단순히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 넘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비(慈悲)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교의 실천덕목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 존중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어린이오계에서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연 친화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는 이러한 생명존중사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래놀이터에 가면 자연이 가깝게 있고, 곤충들이 많이 보이니까. 아이들이 관심이 진짜 많아요. 만져보고 싶어 하며,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요. 어린이오계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을요 “살아있는 생명은 괴롭히면 안돼요. 그림이 친구는 엄마를 못 만나잖아... 나뭇잎도 살아 있는 거야.” 하면서 떨어진 나뭇잎도 줍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숲 산책을 하며 나뭇잎이 내 손하고 같다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팔에 내 손이 있는데 내 손을 꺾으면 어떨까... 하고요. 그런데 해충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주고... ‘모기야 다 음엔 꼭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E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연구 참여자의 교육과정 실행에서 나타난 불교유아교육 실천 덕목은 개정누리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른 인성을 위한 자연과 사람, 그리고 배려와 실천이다. 연구 참여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교유아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지향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교교육의 매우 바람직한 교육적 가치를 알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한 사례이야기를 나누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은 한동안 ‘해충’, 특히 모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모기와 생명존중이라는 주제를 두고 나누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모기, 나, 너, 나아가 환경, 세계적 관점까지 이야기를 넓힐 수 있었다. 생명존중사상이 더불어 살아가기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2) 불교유아교육 관점의 개정누리과정 운영 모습

교육은 교사, 학습자, 교육과정의 유기적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유아교육과정 실행의 핵심 주체는 유아와 교사이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²⁷⁾

그런데,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은 결국 교육과정 변환의 과정으로 교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였다.²⁸ 이는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성과가 달라진다는²⁹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개정누리과정의 운영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적응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성찰을 통하여 또는 유아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1) 교육과정 실천의 주체는 교원

연구 참여자는 교원으로서 변화된 교육과정을 실행의 경험을 물었을 때 불교유아교육기관과 개정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화롭고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정된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인한 현장에 적용에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실행적용의 어려움에서 교원의 자세와 역량이 핵심요소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유치원의 불교의 핵심사상과 개정누리과정이 잘 반영되어 유치원에서 추구를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그걸 얼마만큼 잘 소화해내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요?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교사가 있고 제시된 교육과정을 수행하듯 따라가는 교사가 있어요.

(C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교사가 재미있어야지 놀이가 이끌어지기 때문에 교사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가 재미있고 교사가 흥미로워야 어떤 지원을 더 해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가 볼까하는 생각이 드니까, 교사가 유아의 흥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놀이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제대로 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부모, 교사,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전 연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사들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마다 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아쉬워요.

(A교사, 질문기록지, 2020년 9월 4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이야기에는 교사의 개정누리과정 실천의 핵심역량이 자신, 즉 교사에게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변화된 교육과정의 실천이 교사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정리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교사의 주도적 핵심역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사례이며 이를 위한 교사의 역량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자기성찰을 하는 교원

변화된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교사들의 이야기에서 불교의 연기 사상을 찾을 수 있었듯이 교사들이 변화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적응하는 모습에서도 교사와 관계 맺고 존재하는 대상들과 함께 의미를 찾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놀이 지원을 이야기하며 이전의 교육현장과 차이점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교사자체가 느끼는 하루일과에 대한 즐거움이 달랐어요. 아, 내가 좋아하나를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공하다보니 놀이가 확장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었어요. 아이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나가는 것이 놀이시간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저는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조금씩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교육과정 실천방법을 변화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예전처럼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기보다 어떤 놀이를 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이야기 나누고 난 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예전보다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좋아하는 게 보여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깐 너무 좋다고 하는 모습들에 저도 좋았어요. ‘교사로서 지원해야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끼고, ‘좀 더 빨리 움직이고, 반응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C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16일)

개정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불교와 관련된 행사와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것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정누리과정을 실천하면서 알게 된 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놀이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행사 전에 아이들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와 행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유아가 보이는 흥미 그대로 놀이로 즐기고, 행사라는 경험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름의 놀이방법으로 적용하고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불교 아닐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그 과정에 놀이가 더해져서 다가갈 수 있다면 아이들 눈높이를 좀 더 맞춰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떠한 경험으로 남는다는 것어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16일)

연구 참여자의 개정누리과정 운영사례에는 스스로 자신의 놀이지원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었다, 즉, 개정누리과정의 실행을 자신의 변화를 통해 이끌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아와 함께하는 놀이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스스로 유아의 놀이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가르침을 주고 배우는 관계를 평등한 관계 속에 이루어내는 육바라밀의 교육법³⁰으로도 이어지는 사례로 불교유아교육과 개정누리과정과의 관련과 공통적 지향점을 예측해볼 수 있었다.

유아의 질문이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해요. 부처님께서도 대상의 수준에 따라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수업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촉박해서 자유놀이시간에 자료를 보충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계획된 활동이 덜 하니깐 현재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거 같아요. 개정누리과정이 공포된 덕분에 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동료선생님들에게도 공유하고 있어요. (E교사, 심층면담, 2020년 9월 4일)

오전에 어떤 놀이지원을 해줬는지에 따라 오후놀이가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오후시간에 오롯이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요즘이 정말 좋아요. 오전과 오후 평가시간을 통해 교사도 유아도 자아성찰의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16일)

(3) 협력과 융합의 교육공동체

앞서서 언급했듯 개정누리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변화와 적응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사의 자세와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불교유아교육의 특성과 개정누리과정의 조화를 위한 융합적인 노력도 찾을 수 있었다.

불교 이외에 다른 불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있는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안에 있는 요소들은 생활주제를 맞출 수 있었어요. 아바참여수업 같은 경우, 자연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주제가 맞춰지고, 겨울에는 음악회를 하거나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겨울이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쪽으로 주제가 맞춰지고 생활주제가 다 맞춰져 있었

는데,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봉축행사나 수계법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주제를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연결시켜보고자 한다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했어요. 그래서 봉축행사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가족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로 주제가 들어갔고 수계법회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과 관련한 사물을 생활도구로 생활주제를 잡아서 항상 그렇게 좀 많이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누리과정이 시행되고 부터는 그런 생활주제도 월별의 주제가 제한이 없이 유동적이어서 실천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C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3일)

연구 참여자들은 개정누리과정의 실행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면서도 관계하는 대상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성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교육과정의 실행이 유아, 학부모, 교사, 교육과정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관계하는 교육공동체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불교유아교육의 연기사상이 바탕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동료 교사와 함께 놀이를 들여다보고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공유하게 되면 자신의 시선을 성찰하게 되고, 유아와 놀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는 개별 유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허용적 태도, 유아의 선택과 요구, 경험하고자 하는 것과 의미 있게 느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뿐 만 아니라 학부모와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개정누리과정의 변화 및 놀이의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A교사, 질문기록지, 2020년 9월 4일)

처음엔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점점 다른 기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곳의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관심사로 바꿔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교사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하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16일)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면 나는 무엇을 대비해야할까? 어떤 방법이 맞을까? 고민을 원장님, 동료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알려주시면 또 고민해보고, 실행해보고 하면서 적응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C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16일)

면담을 마치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육과정 실행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이야기에 형성된 종교성이라고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며 관심을 가졌던 유아기 경험, 유아기 종교성이 이후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사상은 항상 제 삶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접한 경험이 이게 종교 때문이라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스며들어 있는 상태인거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다른 교사들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B교사, 심층면담, 2020년 7월 16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미 불교유아교육을 경험하고 있던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이 새롭게 도입된 개정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의미를 질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주요 내용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불교 배경과 아동기 종교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전의 종교적 경험과 인식이 자신의 종교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대학진학 및 불교유아교육기관을 근무처로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인식하며, 관계하는 대상과 상호관련성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유아기 경험은 가족과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정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유아기 종교성발달이 개인의 인격형성과 청소년기 및 성인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김혜순(2013)³¹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인생 초기 경험이 매우 결정적이라는 전제는 종교나 다차원적인 정신 영역의 내적 인간성 형성에 기여하며, 종교성 각인 역시 유아기에 일어남을 볼 때 이 시기에 가지는 종교적 심리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³². 또한 유아의 종교성 발달은 부모나 교사, 종교기관의 교육을 통해 유아 개인적으로 내재화 시킬 수 있기에 주위의 바람직한 종교적 환경이 중요한데, 연구 참여자 대부분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었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관계 맺고 있는 대상들과 인연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불교의 연기에 따르면 모든 존재가 무상하기 때문에 독립할 수가 없고 다른 것과의 인연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³³ 이는 서로가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으로 곧, 교사는 유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 교육과정이라는 개정누리과정의 <목적>과 부합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누리과정의 목표 내용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안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항목은 연기 사상과 연결되어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연계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개정누리과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살펴본 결과, 먼저 불교유아교육 관점에서 개정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연관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교육활동 계획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불교적 가르침과 통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관련요소를 찾아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자율성과 창의성의 함양을 지향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목적과 불교유아교육에서 추구하는 개인의 인성함양과 본성 발현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지혜롭고 행복한 삶으로서의 공동체 교육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닮은 특성이기에 가능했다. 더불어 불교유아교육이 불교에 입각한 철학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정신이 충분히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유아발달단계와 흥미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구성하고 자발적인 놀이의 즐거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유아들을 위한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을 불교사상과 연결하여 강조하고자 하며, 특히 육바라밀, 생명존중사상 등의 불교의 실천 덕목을 교육과정과 효율적으로 통합시키고자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교의 실천적 덕목에 해당하는 가르침들은 교육기관의 특성 및 교실의 놀이상황에 맞추어 직접적인 생활주제로 선정될 수도 있고, 특색 교육활동 및 행사 등에서 불교적 교수학습 방법이 접목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는 종교교육은 지적인 배움보다 느낌과 환상적인 방법으로 창조적인 작업과 놀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³⁴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사는 일상생활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는데 초점을 두고,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보다 즐겁게 배우도록 지원³⁵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류미향(2011)³⁶의 불교사상을 근거로 한 유아 생명존중 교육연구에서도 유아 교사는 유아와 교실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안’에서 ‘밖’으로의 형식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모든 우주의 생명이 서로 공생·공존함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에 대한 교육적 실천 적용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유아는 이해와 관용이 주어지고 자유가 허용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발휘할 수 있기에 연구의 참여자들은 오래전부터 불교유아교육과정 관점에서 교육과정 접근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교유아교육 관점의 개정누리과정 운영 모습을 탐색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속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의 자발적인 실천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개정누리과정의 실행 이전부터 유아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과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의 역량 규명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유재경 등(2020)³⁷의 연구결과 교사인성 및 전문성 개발 영역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처럼 교사는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주체가 되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대한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매개의 주체로서 교육현장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을 실천함에 있어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거나,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행사 및 교육활동들이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통해 일상에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유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며, 놓치고 있던 부분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즉,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원들은 교사경력과 교육경험으로 구축해 온 기존의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기 위한 시도로서 자발적으로 기존의 교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의 역량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내면과 교육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함을³⁸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불교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집중하게 되었고, 보다 열린 시각과 깨우침을 통한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나아가 사회변화와 국가 교육정책까지 폭넓게 수용하고자 하고자 노력하는 융통적인 교사의 자세를 갖추 수 있었다. 이는 불교적 사유가 교사에게 미치는 긍정적 시사점 연구 결과³⁹를 뒷받침한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한동안 불규칙한 등원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실행 및 적용하는 시기가 늦춰져 학사운영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염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오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 또한 자신의 종교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감정과 태도를 조절하고, 내재된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 반성법을 찾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들의 협업이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인식하고 원장 및 동료, 선배교사에게 질의를 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교육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허정민, 이진희(2019)⁴⁰의 연구에서도 누리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교사들 스스로 언급한 점은 큰 교육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불교유아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방향성이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연관성이나 공통성이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가지 교육과정은 모두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종교적 가르침이 세속의 가르침에 우선하며 더 근본적이라는 점을 교사들이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적합한 종교를 선택하여 종교가 추구하는 교리에 의거해 생활하다보면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정은 교사 자신에게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유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자비의 마음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원활하게 나타내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이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교의 핵심사상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이 다양한 유아교육과정의 접목을 위한 교사 개인 노력과 기관차원의 지원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교수 활동에 대한 자기성찰과 놀이지도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동료장학, 그리고 종교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교육경험과 예술 경험 그리고 불교문화의 경험 기회 등도 보다 풍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원 자신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개정누리과정의 현장 정착에도 유효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적 경험에 의존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의 경우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교사에서 원장으로 업무형태의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실행주체로서의 경험을 이끌어내는데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교원과의 면담

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개정누리과정의 실행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상황적 한계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불교유아교육의 방향 탐색과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에 대한 의미 탐색이 현장 교원들과의 면담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불교유아교육의 방향 탐색과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유아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과의 융합 노력이 적극적으로 탐색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교사와 유아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시킨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한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를 추진해보기를 제안한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5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자료는 심층면담과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수집하였고, 질적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은 자신들의 아동기 종교적 경험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둘째,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은 그동안 불교유아교육 관점에서 유아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으며, 개정누리과정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교수행위를 성찰하며, 교육공동체로서의 협력활동을 추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이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 결과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교원들을 위해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참적 수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교원 자신들의 인성함양에 효과적임은 물론 개정누리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에도 유효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불교유아교육, 개정누리과정

References

- 교육부, 『2019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2019.
- 권대원, 『불교유치원 교사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파주: 양서원, 2008.
- 권대원, 『불교유치원을 위한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 파주: 양서원, 2015.
- 김수경, 「불교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영옥,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변천과 개정누리과정의 과제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5권 (원주: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20).
- 김정선, 「불교유아교육과정중심의 유아명상이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혜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불교상담학연구』 제5권 (경주: 한국불교상담학회, 2013).

- 류미향, 「유아 생명존중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불교생명존중사상의 유아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9권 1호 (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
- 민희정, 「불교유치원에 대한 부모의 선택요인 및 만족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손승희, 「교육과정 실행과 실행형태의 탐색」 『교육연구논총』 제29권 2호 (대전: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 엄태동, 「하이데거의 존재사유를 통해 본 현대의 병과 아동 현존재를 위한 교육」 『초등교육연구』 제23권 (춘천: 한국초등교육학회, 2010).
- 유재경, 황지영, 박은미, 「2019 개정누리과정을 반영한 유아교사 핵심역량 모델 개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제24권 1호 (서울: 한국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2020).
- 유혜령, 「놀이기반 배움의 방향에 관한 탐색: 표상을 넘어 사건으로」 『어린이교육비평』 제9권 (서울: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19).
- 이경화, 「2019 개정누리과정의 성격과 그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 탐색」 『어린이교육비평』 제9권 2호 (서울: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19).
- 이영림, 「불교유아교육기관 교사 자율장학을 위한 기초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영림, 「불교생태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교육방안」 『동아시아불교문화』 35권 (서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 정미라, 김경철, 정대련, 권정윤, 최일선, 임수진, 강수경, 「누리과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요구도 분석」 『유아교육연구』 제39권 (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 최호순, 「불교경전에 나타나는 아동선지식과 화엄보살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한유진, 고진영, 김경철,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메타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청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 황옥자, 『불교아동교육론』 (서울: 불교시대사, 1994).
- 허정민, 이진희, 「누리과정 실천과정에서 드러나는 유아교사들의 도전과 딜레마」 『한국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제2018권 1호 (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
- Catherine Maresca., *A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 "Sewanee Theological Review, (Denver: Living the Good News, 2005).
-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15.
- Manoj Khakhlary, 「The Importance of Buddhist Education System」 (University of Hyderabad, 2019).

Endnote

- 1 권대원, 『불교유치원 교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파주: 양서원, 2008), 24쪽.
- 2 김정선, 「불교유아교육과정중심의 유아명상이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8쪽.
- 3 황옥자, 『불교아동교육론』 (서울: 불교시대사, 1994), 11쪽.
- 4 Catherine Maresca., A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 Sewanee Theological Review (Denver: Living the Good News, 2005), p457-458.
- 5 Manoj Khakhlyar, The Importance of Buddhist Education System(University of Hyderabad, 2019), p2.
- 6 최효순, 「불교경전에 나타나는 아동선지식과 화엄보살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6쪽.
- 7 황옥자, 「불교유치원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학위논문, 2000), 39쪽.
- 8 이영림, 「불교유아교육기관 교사 자율장학을 위한 기초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7쪽.
- 9 권대원, 앞의 책, 91쪽.
- 10 김수경, 「불교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쪽.
- 11 황옥자, 앞의 글, 3쪽.
- 12 이에 대한 예로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의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교사 워크숍”이 있다.
- 13 민희정, 불교유치원에 대한 부모의 선택요인 및 만족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7쪽.
- 14 정미라, 김경철, 정대련, 권정윤, 최일선, 임수진, 강수경, 「누리과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요구도 분석」 『유아교육연구』 제39권 (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411쪽.
- 15 손승희, 「교육과정 실행과 실행형태의 탐색: 연구동향과 발전방향」 『교육연구논총』 제29권 2호 (대전: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8쪽.
- 16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15).
- 17 권대원, 앞의 책. 39쪽.
- 18 엄태동, 「하이데거의 존재사유를 통해 본 현대의 병과 아동 현존재를 위한 교육」 『초등교육연구』 제23권 (춘천: 한국초등교육학회, 2010), 157쪽.
- 19 권대원, 앞의 책, 14쪽.
- 20 김영옥,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변천과 개정 누리과정의 과제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5권 (원주: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20), 97쪽
- 21 유혜령, 「놀이기반 배움의 방향에 관한 탐색: 표상을 넘어 사건으로」 『어린이교육비평』 제9권 (서울: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19), 60쪽.
- 22 권대원, 앞의 책, 22쪽.

- 23 권대원, 『불교유치원을 위한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 (파주: 양서원, 2015), 230쪽.
- 24 교육부, 『2019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2019), 4~6쪽.
- 25 권대원, 『불교유치원 교사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파주: 양서원, 2008), 23쪽.
- 26 위의 글
- 27 한유진, 고진영, 김경철,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메타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청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948쪽.
- 28 위의 글, 962쪽.
- 29 정미라, 김경철, 정대련, 권정윤, 최일선, 임수진, 강수경, 「누리과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요구도 분석」 『유아교육연구』 39(서울: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410쪽.
- 30 권대원, 앞의 책, 23쪽.
- 31 김혜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불교상담학연구』 제5권(경주: 한국불교상담학회, 2013), 6쪽.
- 32 권대원, 앞의 책, 35쪽.
- 33 권대원, 『불교유치원을 위한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 (파주: 양서원, 2015), 33쪽.
- 34 권대원, 『불교유치원 교원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파주: 양서원, 2008), 35쪽.
- 35 이경화, 「2019 개정누리과정의 성격과 그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 탐색」 『어린이교육비평』 제9권 2호 (서울: 한국어린이교육비평학회, 2019), 14쪽.
- 36 류미향, 「유아 생명존중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불교생명존중사상의 유아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9권 1호 (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 35쪽.
- 37 유재경, 황지영, 박은미, 「2019개정누리과정을 반영한 유아교사핵심역량 모델 개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제24권 1호(서울: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20), 11쪽.
- 38 김혜순, 앞의 글. 11쪽.
- 39 이영림, 「불교생태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교육방안」 『동아시아불교문화』 35권 (서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518쪽.
- 40 허정민, 이진희, 「누리과정 실천과정에서 드러나는 유아교사들의 도전과 딜레마」 『한국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제2018권 1호 (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 11쪽.